

사공 많은 온라인음악 시장 '어디로 가나'

MP3폰 출시 앞두고 저작권 관련 이해관계 대립 ... 온라인음악 법적 분쟁 장기화

글 / 국순신 inews24 기자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중재로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업체, 음악저작권관련단체가 한 곳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MP3플레이어와 휴대폰이 결합한 MP3폰의 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DRM) 장착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업체와 저작권관련단체는 서로 이해관계를 드러내면서 합의한 도출은 결국 결렬됐다.

정부는 여러 차례 업체에서 스스로 합의안을 찾도록 중재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한 채 참석자들을 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걸 서로 확인하는데 머물면서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휴대폰제조업체들은 MP3폰 출시를 일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단체는 MP3폰이 등장하면 관련 이동통신사와 휴대폰제조업체에 음원을 중단하겠다고 강경대응하고 있다.

MP3폰은 단순한 MP3플레이어와 휴대폰의 결합이라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갈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을 세 진영을 살펴보면 MP3폰의 등장의 이해관계를 서로 들여다볼 수 있다.

MP3폰 둘러싼 이해관계 얽혀

음악저작권관련단체들은 배수진을 치며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그동안 좀처럼 단일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6개 단체가 창구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 단일화시키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6개 단체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 등이다. 6개 단체가 한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위기의식은 공감하고 있다. MP3폰에 무료 MP3파일을 구동할 수 있게 된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미 소리바다 등을 통한 무료 MP3파일의 복제로 음반판매에 심한 타격을 입었던 기억이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에 MP3플레이어의 기능이 장착돼 MP3파일 복제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면 사실상 이들에게는 큰 실패를 입을 게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나마 디지털음악으로 짤랐던 수익을 거두는 부분이 이 곳이기 때문. 이미 벨소리와 통화 연결음 등의 모바일 음악 시장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무료 MP3파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MP3폰의 출시는 이 시장마저 붕괴시킬 지 모른다는 걸 음악저작권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통사 MP3폰 출시 '기대반 걱정반'

2004년 1월에 개시된 번호이동성으로 가입자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이동통신사의 입장도 서로 다르다.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1위 업체와 3위업 체간의 갈등, 그리고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이동통신서비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킬러콘텐츠의 발굴이 그것이다.

먼저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SK텔레콤과 3위 업체인 LG텔레

또 괜히 무료 MP3폰 출시로 음반업체간 반목을 보일 수 필요가 없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보다 더 민감한 부분은 이동통신사의 매출이 정제기에 들어선 가운데 MP3파일이 무선인터넷의 킬러콘텐츠로 등장하게 된다면 이동통신사의 매출을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휴대폰제조업체의 경우 음악저작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무료 MP3폰에 대한 제약이 심해질 경우, MP3폰의 장점을 충분히



〈그림 1〉 LG텔레콤은 MP3 기능을 탑재한 신규 휴대폰 LP-3000을 기습적으로 출시했지만, 저작권단체들의 반발로 일부 신청 고객들에게만 판매된 채 정상적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컴이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자세부터 달라 눈길을 끈다.

지난달 8일 LG텔레콤은 MP3폰을 기습 출시했다. 이날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이동통신사, 그리고 휴대폰제조업체간 MP3폰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밝힌 날이었다.

이 자리에 불참한 LG텔레콤은 뱅크온 서비스 판매매장을 통해 'LP-3000' 모델을 수백대 판매했다. 이 단말기에는 DRM 솔루션이 장착돼 무료 MP3파일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결국 발매 하루만에 무료로 MP3파일을 PC에서 휴대폰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해 LG텔레콤이 고의로 발매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반면 선발업체인 SK텔레콤은 디지털콘텐츠저작권보호에 대해 음반업체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타 이동통신사가 무료 MP3파일을 이용하는 MP3폰을 내놓을 경우, 뒤늦게 쫓아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선발업체로서의 자신감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히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통부와 문화부, 두 주무 부처가 손잡아 대응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료음악파일의 재생시간 제약 및 음질저하 등의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휴대폰 사용자 커뮤니티 세티즌(www.cetizen.com)은 무료 MP3 파일 이용제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세티즌은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한 CD로부터 변환된 MP3 및 어학 자료들조차 전화통화 수준 이하의 음질 또는 제한된 시간 동안 MP3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생각에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시장도 해결기미 안보여

온라인음악시장도 사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PC에 저장하지 않고 물흐르듯 서버에서 PC로 음악을 들려주는 온라인 스트리밍음악시장과 PC-PC 또는 PC에서 MP3플레이어로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MP3 다운로드시장 모두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사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온라인스트리밍음악의 선두업체인 벅스는 음악저작권단체가 신청한 각종 민형사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음악저작권단체는 “음악을 제공하려면 권리자로부터 음원허



〈그림 2〉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모임인 세티즌은 지난달 22일 'MP3폰 소비자 권리찾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림 3〉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벅스뮤직의 스트리밍서비스 가운데 1만여 곡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다.

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음원제공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벅스는 지난해 10월부터 9,765곡에 대한 서비스가 중지된 상태다. 음악저작권단체들이 내건 각종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종 사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 추가 가처분 신청은 아직 안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작권관련단체와 벅스간의 이해관계는 이후 감정싸움으로까지 넘어서면서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 시장의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접권자에게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벅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다.

전송권이 인정될 경우, 그동안 인터넷방송의 개념으로 발달하던 벅스로서는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총선 이전에 법률개정안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문화부가 추진해왔지만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국가가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또 벅스는 2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펀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 투자가 성사되면 벅스는 자금난이 해결되는 한편,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음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소리바다의 운영자인 양씨형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에 걸려 있다. 검찰은 이번 형사소송을 위해 소리바다를 즐겨 찾는 네티즌들을 찾아내 저작권법 위반혐의 사실을 밝

혀냈다. 당초 2월초에 공판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P2P사이트나 개인 사설 서버 등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됐다.

온라인음악시장 활성화에도 발목

올해 1월 서태지가 신곡을 선보이면서 유료 온라인음악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졌다.

CD 판매와 스트리밍, 다운로드 등 온·오프라인 유통을 통해 동시 발매된 결과,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곡당 800원이란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서태지의 음악을 구입했기 때문.

이는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음악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유료 온라인음악시장의 활성화에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음악저작권단체와 관련 없는 유료 온라인 음악 사이트는 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온라인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일부 서비스 곡이 제한된 데 이어 네티즌들의 이용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음악과 관련된 저작권 비용이 높아 수익을 마련하기가 버겁기 때문이다.

유료 온라인음악 사이트 관계자는 “이 시장이 올해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태”라면서 “그래도 소비자들이 음악도 돈내고 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유료온라인음악을 많이 찾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